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 (Service That Builds the Church)

■ 에베소서 4:11-16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큰 축복이 일하는 즐거움입니다(창1:28).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으며, 수많은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셨으며, 그들에게 기쁜 소식, Good News,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친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였던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는 사역,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 말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선교를 나가야 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울까 할 수 있을까요?

1. 영적 리더와 평신도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도 사도로, 어떤 사람도 선지자로, 어떤 사람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엡4:11) 여기에 등장하는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교회의 전임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엡4:11~12). 첫째,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교회가 한 성도도 예외 없이 사역을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자 합니다.

2.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나”(엡4:1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몸을 이루야 하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야”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스 안드라 탈레이온”인데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고전12:12).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데, “에이스 안드라 탈레이온” 완전히 건강한 몸을 이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0가지가 넘는 은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교사, 돕는 것, 다스림, 위로, 구제, 지도력, 긍휼, 복음증거, 목사, 대접하는 일, 순재주, 도고, 찬양, 애능, 등등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은사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이스 안드라 탈레이온” 완전한 몸, 건강한 몸을 이루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봉사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3. 건강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통하게 세우느니라”(엡4:16) 건강한 몸은 각 지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교회를 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하나 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다량방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연합과 화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룸으로 21세기에 펼쳐 가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맺는 말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다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Ⅰ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Ⅰ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유아부(13개월-4세)	Ⅱ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Ⅱ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Ⅲ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Ⅲ 부 (50대)	오전10시 401호
유치부(5세-7세)				Ⅳ 부 (60대)	오전10시 301호
				Ⅴ 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예 바 다 부	Ⅰ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Ⅱ 부	오후2시 603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새 가 족 부	Ⅰ 부	오전10시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Ⅱ 부	오후12시40분 602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4시	501호		Ⅲ 부	오후3시20분
청년1,2부 토요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오후 1시	903호	소요리문답 Ⅰ · Ⅱ 부		오전10시,12시40분 801호601호
디아스포라부			신앙강좌 Ⅰ · Ⅱ 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현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해영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교육 목사 임규현 김안성 이종진 교육전도사 김은숙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협동목사 김병관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름·주한나, 이시라, 권요셉·조예스티, 김모세·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모바로에,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말라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민서·현해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민규(우크라이나), 허창범·원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영모, 추수희,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미리코동지서),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Steven Martinolich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119:88,91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72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Sung Joo Hong
Hymn 384(434)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John 13:1-17	Presider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Shin on us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Member' s Fellowship	Congregation
Sermon Overcoming the World through an Act of Love ...	Rev. Steven Martinolich
* Hymn 447(44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Overcoming the World through an Act of Love

John 13:1-17

Summary of the sermon

Jesus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with this simple act of Love involving Himself and the twelve disciples. It is so important that we as His followers understand what He is teaching, if we want to walk with Him in our lives.

First, we are to overcome differences among people by an act of Love. Not only are we to overcome outside differences like race, education, position, etc., we are to overcome inside differences of the heart that result in lies, betrayal, and unfaithfulness. Each of the disciples were in fault in some way, yet Jesus revealed His love and what it looks like to love.

Second, to overcome the emotions and relationships that differences among people cause, we are to lay it all down - humbly submitting to lift the other up. Jesus, the Lord and Master, became the humble servant, breaking down all barriers of status, hierarchy, and position.

Third, to overcome is for a great purpose which is to lead others to do the same, to truly become followers of Christ. To overcome is to lead by example, to vividly show and live what is revealed in our hearts by Jesus Christ.

God has given us all the power in the world to do this, His power of love for us. Come to His love, His grace, His mercy to overcome any evil thought and perspective, and let Him lead us to others. See each other as Jesus Christ saw us, becoming blind to everything ugly, and sinful thing, and focus solely on our own acts of Love. Turn the world upside down for Christ and His glory.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Bible study is after fellowship so please join so we can together dig deeper into the mighty word of God.
- Please help our English Ministry Serve- Sign-up sheet in room 104.
- Our Wednesday Night Bible Study is from 8:30-10:00 in Room 603. We are studying the Book of James.
- Thanksgiving Dinner- end of November. Sign-up sheet in room 10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황 광 목사	황 광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유문건 목사	김광신 장로

임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1:6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삼계명) ... 다 함 께 2부 4(시104편)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93(447)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4:1-2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 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행복한 일꾼들" ... 박노철 목사 (Blissful Servants)
* 찬 송 Hymn	461(519)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설교: 박노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0:1-3 ... 인 도 자
찬 송	93(93) ... 다 함 께
기 도	김권집 집사
찬 송	191(427) ... 다 함 께
성 경	롬 14:1-4 ... 설 교 자
후반기 열린프로그램 수료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용납함의 미학" ... 설 교 자
특별찬양	중고대청부
* 찬 송	220(278)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채덕희 권사, II부: 김사라 권사
성 경	마 6:5-8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기도가 아름다울 때" ...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혜란·강영언

설 교 ... 박노철, 한상은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 박노철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내 영혼의 구주	J. M. Martin	유태왕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왕께 경배 찬양	Roger C. Wilson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시편 150편	A. Randegger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윤종현1
찬양예배	베들레헨	주의 은혜로	Robert Sterling	김낙형	오신옥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Shine on us	Debora Smith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 I부	호 산 나	주기도문	Albert Hay Malotte	서희숙	김윤지2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큰 위업을 이루셨네	Joseph Haydn	백경화	김진행	서유진	

(한글송)

I부	초등부	세상을 향해	미상	양혜선		홍혜란	
II부	그레이스랜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Matthew Prins	송재월			
III부	이편관현악단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R. Prichard	임범창			

뒤면에서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노할래	3교구	모세	황영희	김영화	1-31	네펠	본인	한민수	6-6	대학부	임범창
변상진	3교구	에스터	황영희	Nilantha	10-6	청년부	홍재식	방세영	2-5	고등부	이유희/박광옥
한진수	1-31	바울	본인	박한채	14-2	청년부	임홍수	한상민	1-31	중등부	본인
이성희	12-8	마리아	최정옥	최시원	7-9	대학부	유울상/아실베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면에서 계속

8.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9. 의료 상담 / 박동원(한방) 박경정(치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 장례

1.故 김시상 성도(16교구 김만운 성도 부친, 장호림 집사 시부) / 6일 별세, 8일(화) 발인

2.故 남궁복이 권사(7교구 윤문자 권사 모친, 김태기 장로 장모) / 7일(월) 별세, 9일(수) 발인



다시 보라

사람은 자기 등을 볼 수 없다. 자화자찬의 도가 지나치면 코미디가 되는 법이고 자기비하를 지나치게 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이웃을 시기나 멸시의 대상으로서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라는 말씀이다.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한 유대인들과 로마의 관헌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국가 전체에 비극을 자초하게 되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다.

이제 우리의 영적 눈을 다시 한 번 뜨고 참으로 보아야 할 것을 다시 보도록 하자. 존재하는 인물로서만이 아니고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새롭게 하려면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할 것이다.

-이종윤 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